

김재열·금빛으로 직조(織造)한 대가야의 금공 문화
이한상, 『대가야의 성장과 금공 문화』(서경문화사, 2025)

서평

금빛으로 직조(織造)한 대가야의 금공 문화 -이한상 『대가야의 성장과 금공 문화』(서경문화사 2025)-

김 재 열*

I. 들어서며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는 귀금속(貴金屬)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기간이었다. 금, 은, 금동을 사용해 의복 장신구(裝身具), 그릇(金銀器), 마구(裝飾馬具), 무기(裝飾武器)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귀금속 공예품을 만들어 사용했고, 수려한 귀금속 유물을 무덤에 부장하는 장례 풍습이 대유행한 시기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당대의 한 축이었던 대가야도 공통된 현상이었다.

귀금속으로 제작된 금공품에는 각별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일차적인 장식(裝飾) 기능을 넘어 물품 소유자의 권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귀한

* 金載烈, 문학박사, 국가유산진흥원, jyul@kh.or.kr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309>

위세품(威勢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만큼 금공 위세품(金工 威勢品)은 당대 사회의 귀금속 자원, 고도의 기술, 높은 완성도와 조형미를 가진 물품 중 하나였다. 금공품에 대한 고고학 추론으로 고대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까닭이다.

저자 이한상의 『대가야의 성장과 금공 문화』는 금공품을 주제로 대가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살핀 저서이다. 대가야는 5세기 전반 우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백제, 신라와 함께 한반도 남부의 정세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대가야는 여전히 ‘수수께끼의 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가야를 다룬 문헌 자료의 절대적 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 공백을 이 책이 메워주고 있다. 저자의 표현처럼 ‘금공품은 단절된 기록을 채우며 ‘대가야’라는 고대 국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窓)의 역할’을 한다. 다음에서 저자가 준비해 둔 창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한다.

Ⅱ. 지난 저작들의 궤적

저자 이한상은 고대사회의 금공품을 공부하는 중진 연구자이다. 그간의 저서는 한국 고대사의 금공품과 금공 문화 연구에 기울인 그의 노력을 말해준다. 이번 책을 살피기에 앞서 지난 저서들의 간단한 궤적을 짚는다.

『황금의 나라』는 신라의 귀금속제 장신구를 다룬 책이다. 여러 논문들이 가독성 좋게 편집돼 담겨 있다. 『공예1(고분미술)』은 주요 신라 금공품의 컬러 사진과 담백한 해설이 들어있다. 손바닥만 한 자그마한 책이라 오며가며 읽기 좋다. 『황금의 나라』와 『공예1(고분미술)』, 두 책은 신라 귀금속제 장신구 연구의 입문서로 적격이다.

이후 저자의 시야는 백제와 동아시아로 확장된다.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는 백제 귀금속 장신구와 금공품을 집성하고 백제 중앙

과 지방 집단의 성장 과정을 장신구 사여 체제와 연계시켜 조명한다. 『동아시아 고대 금속제 장신구 문화』는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귀금속제 장신구 문화 전반을 다룬 기본서이다.

장식대도는 무기인 동시에 위세품으로 쓰인 금공품이다. 『삼국시대 장식대도 문화연구』에는 백제, 신라, 가야 장식대도의 고유 양식과 제작 기술을 설명하고, 장식대도를 주제로 각 나라 금공 문화의 유행과 배경을 다루었다.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제』는 신라 귀금속제 장신구 문화를 ‘복식사여체제론 시각’으로 설명한다. 전작 『황금의 나라』가 유물에 집중했다면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제』는 귀금속제 장신구를 이용한 신라 중심 세력과 여러 지역 집단의 이해관계와 신라의 성장에 비중을 두었다.

저자의 저술 목록에는 전문 서적만 있지는 않다. 청소년을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천마총 금관 신라를 담은 타임캡슐』, 우리나라 주요 유적의 발굴사례를 흥미롭게 다룬 최근작 『팔수록 더 깊어지는 발굴 이야기』가 있다. 공저 『한국 금속문명사: 주먹도끼에서 금관까지』는 인문학 시각에서 금속 문화를 조명한 책이다.

【이한상의 주요 저서】

- 황금의 나라, 2004, 김영사.
- 공예1(고분미술), 2006, 예경.
-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2009, 서경문화사.
- 東아시아 古代 金屬製 裝身具 文化, 2011, 도서출판.
- 삼국시대 장식대도 문화연구, 2016, 서경문화사.
- 이한상(글) · 오정택(그림), 2019,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토토북.
- 공저(김종일, 정정용, 성춘택, 이한상), 한국 금속문명사: 주먹도끼에서 금관까지, 2020, 들녘.

-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제, 2022, 서경문화사.
- 천마총 금관 신라를 담은 타임캡슐, 2023, 틈새책방.
- 팔수록 더 깊어지는 발굴 이야기, 2025년, 책과 함께.
- 대가야의 성장과 금공 문화, 2025년, 서경문화사.

Ⅲ. 『대가야의 성장과 금공 문화』에 담긴 내용

1. 1부 대가야 금공품의 연구사

이 책에는 장신구, 화살통 부속구, 장식대도를 중심으로 대가야 금공품 연구사를 1980년대까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나눠 설명한다. 초기는 가야 물품 전반을 포괄한 연구 위주였고 대가야 금공품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980년대는 대가야 금공품 연구가 본격화한 기간이었다. 저자는 그 계기를 합천 옥전 고분군 발굴과 금공품 출토, 1983년 공간이 된 ‘금공품 분배론’, 금공품 제작 기법 연구의 증가로 설명한다. 금공품 신자료의 확보, 금공 위세품의 생산과 유통의 해석, 제작법 등 연구 방법의 고도화가 대가야 금공품 연구를 가속화 했다.

2000년대 이후 상세한 실측도, 세부 사진이 대거 공개되며 종전 양식론에 더해 제작과정, 문양 분석 등 대가야 금공품 연구의 외연이 한층 확장된다. 대가야 금공 문화의 전개 과정, 백제 금공 문화의 수용과 대가야화, 신라와 일본으로의 전래 등이 다뤄졌다. 그 과정 가야 금공품의 분포권을 낙동강 이서로 보는 시각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대가야는 다른 가야권 유물보다 수량이 많아 고대 금공품 연구에 이점이 많다. 다음에서 이 책에 담긴 대가야의 『금공품 양식의 발현』, 『금공품 제작 기반』, 『금공품 양식 비교』를 차례로 살펴본다.

2. 무엇이 대가야적인 금공품인가: 2부 금공품 양식의 발현

이 장에서는 대가야권에서 출토된 금공품의 ‘대가야다움’ 다뤘다. 금동관, 귀걸이, 용봉문 대도의 형태, 장식 문양, 제작 기법을 분석해 ‘대가야 고유 양식’을 차례로 설명한다. 대가야 양식 금공품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 양상을 대가야의 성장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대가야 금동관, 귀걸이, 대도 자료와 생동감 높은 컬러 사진을 망라한 점은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 대가야 양식의 금동관과 귀걸이

고령 지산동 32호분과 30호분 금동관은 본격적인 대가야 양식 금동관이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원추형, 삼익형, 궁구체, 산치자형, 곡옥 등을 사용한 귀걸이 역시 대가야적 특색을 보여준다. 이웃 백제와 신라 귀금속제 장신구의 특징이 복잡 화려함이라면, 대가야 장신구는 한층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조형인 점을 저자는 설명한다.

대가야적인 금공 문화가 탄생하기까지 백제 금공 문화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5세기 전반 대가야 금공품에서 백제 영향력이 찾아진다. 5세기 후반 대가야적인 특색이 현저한 금공품이 속속 등장하며, 대가야 양식 물품의 공간적 범위도 넓어진다. 대가야 중심지 고령 중심으로 금공품이 제작 유통되며 대가야 양식 금공품의 광역적 분포권이 형성된다.

저자는 대가야의 성장과 발맞춰 유력자들의 결속과 사회 유지를 위해 대가야 양식 금공품을 본격 제작해 활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대가야 금공 문화가 같은 시기 백제나 신라보다 정형성이 낮은 점은 대가야 왕권 내지 집권력의 한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 대가야 양식의 용봉문 대도

이 책에서는 그간 발굴된 대가야 용봉문 대도를 집성하고 용봉문 대도의 양식적 특징, 등장과 발달 과정을 설명했다. 다채로운 컬러 사진으로 독자에게 대가야 용봉문을 생동감 높게 전달하고 있다. 삼국시대 용봉문 대도는 무기를 넘어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사용됐다. 대가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는 용봉문 대도의 꼼꼼한 분석, 대도 소유자들 간의 정치적 관계와 시대적 배경이 조명되고 있다.

대가야 용봉문 대도의 기원은 백제에서 찾아진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일부 대도는 공주 수촌리 출토품과 비견되는 고급 기술로 구현됐다. 백제 완제품이 반입됐거나 백제 장인의 기술 지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가야 독자적인 용봉문 대도의 도상과 제작 기술은 5세기 후반 구축된다. 칼자루 끝의 둥근 고리 속 용과 봉황이 머리를 서로 교차하는 도안, 둥근 고리를 빈 파이프 형태로 만드는 제작법, 바탕 금속의 문양을 조각한 후 그 위에 금판을 입히는 장식 기법은 대가야 용봉문 대도의 독특한 특징이다. 대가야 양식의 용봉문 대도 문화가 강하게 발현한 5세기 후반 신라 식리총 등에 대가야식 용봉문 대도가 전달된다. 이 무렵 대가야의 본격적 성장과 외교 활동에서 그 배경이 찾아진다.

3. 대가야 금공품의 기술과 용(龍) : 3부 금공품 제작 기반

당연하지만 물품은 스스로 생겨날 수 없으며, 장인의 손끝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물이다. 그런 이유로 물품에서 제작 기술을 찾는 것은 고고학의 주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책 「3부 금공품 제작 기반」에서 다룬 내용은 대가야 귀금속 장인이 발휘한 기술 그리고 대가야 금공품의 용(龍) 문양이다.

상상 속의 용을 직접 마주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예외적으로 용을 목격한 듯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대가야 금공품의 기술과 미감, 그리고 독점

대가야 무덤에서 출토된 금공품에는 대가야 장인이 구사한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귀금속을 녹이고(주조) 두드려(단조) 형태를 잡고, 무늬를 뚫고(투조) 점선을 새겨(조금) 장식한다. 끝으로 가는 금선과 금알갱이를 덧붙여 마감한다(누금세공).

저자는 대가야 금공품 기술의 계보를 백제에서 찾는다. 5세기 전반 대가야 금공품에는 백제 색채가 현저하며, 5세기 후반 들며 대가야 양식 금공품이 만개한다. 백제에서 기술을 습득한 대가야 금공품 장인의 성장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령 지산동 32호분과 30호분에서 출토된 초화형 입식을 갖춘 금동관은 대가야 장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대가야 양식의 주력 금공품 중 하나이다. 귀걸이는 대가야 장신구 가운데 출토 사례가 많고 양식적 특징도 뚜렷하다. 금관을 둥글게 말아 만든 원추형, 삼익형, 공구체, 산치자형, 곡옥 등 다양한 형식이 사용됐다.

귀금속제 장신구는 대가야 금공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고대 사회의 장신구는 몸과 의복을 화려하고, 세련되게 꾸미는 것에 더해 소유자의 고귀한 사회적 지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쓰였다. 대가야의 귀금속제 장신구와 금공품, 금공 기술은 대가야 왕이 독점하고 왕족이나 유력자들과 공유했을 것이다. 같은 시기 백제나 신라와 같은 전형적 복식사여체제가 대가야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필요에 따라 장신구를 지역 세력들에게 적절히 사여하였다.

• 대가야 금공품의 용(龍) 문양

상상 속 동물 용(龍)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활용되었다. 고대 국가로 성장한 대가야 역시 장식대도와 화살통 장식에 용문을 사용했다. 저자는 대가야 금공품의 용문 자료를 집성하고 그 계보와 전개 양상을 일목요연이 설명하고 있다.

용 문양이 표현된 가장 오래된 대가야 금공품은 5세기 중엽 합천 옥전 35호묘 장식대도이다. 저자는 대도 용문의 계보를 백제에서 찾는다. 4세기 후반 이래 지속된 대가야와 백제간 우호의 산물로 백제산 물품이 대가야권에 도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5세기 후반, 대가야산으로 보아 무리 없는 합천 옥전 M3호 장식대도가 등장한다. 대가야산 장식대도의 본격적 제작은 이 무렵 대가야 성장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6세기 전반은 대가야식 용문양의 발전기이다. 앞 시기 도상을 계승하며 새로운 도상을 창안한다. 지산동 39호분 화살통 부속구에 투조된 여러 마리 용문은 새롭게 창출된 대가야 양식으로 설명된다.

대가야산 용문 장식대도는 신라와 주변 나라로 전해진다. 경주 식리총과 호우총, 창녕 교동 10호분 출토품은 대가야 양식이다. 그 외 대가야 용문 장식대도는 아라가야와 일본 열도로도 파급된다.

4. 대가야 금공 문화의 교류: 4부 금공품의 양식 비교

고고학 자료서의 물질문화(遺物)는 한 곳에 고정해 머물지 않는다. 물품을 선호하는 집단과 물품을 전해주며 이득을 꾀하는 집단 사이를 물품은 끊임없이 오고 간다. 고대사회 물품 교류는 완제품의 이동, 장인의 왕래, 기술의 전수와 습득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 책 ‘제4부 금공품의 양식 비교’는 대가야의 시각에서 백제, 신라와 주고받은 금공품의 교류를 다루었다. 백제와 신라에서 금공 문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짚고, 어느 시점 무슨 의도로 상호 간 금공품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지 일목요연이 설명한다. 대가야, 백제, 신라 각 나라 금공품의 특색과

고유 양식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꼼꼼히 다루었다. 독자 입장에서는 삼국시대 금공품 문화의 흐름 전반을 접할 호기이기도 하다.

• 대가야와 백제의 금공 문화 교류

백제 금공 문화는 5세기 전후 백제 고유 양식과 기술이 정립된다. 대가야는 5세기 이후 백제와 연대를 강화하며 백제의 선진 금공 문화를 적극 수용한다. 초기는 완성된 금공품이 백제에서 대가야로 수입되는 형태가 주류이다. 곧이어 백제 장인이 대가야 지역에 직접 파견돼 현지에서 금공품을 제작하거나, 대가야 장인에게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대가야 금공품의 자생적 제작 체계가 형성된다.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 독자적인 금공 문화의 형성은 단순 수용을 넘은 재창조의 양상으로 발달한다. 대가야 고유의 조형성과 장식미를 지닌 금동관, 금귀걸이, 장식대도 등의 금공품 제작과 사용이 활발해진다. 백제와 대가야 간의 금공 문화 교류는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 양국 간의 정치적 동맹, 문화적 연대의 증표로 해석될 수 있다.

• 대가야와 신라의 금공 문화 교류

신라 금공 문화는 4세기 후반 시작돼 5세기 중반 만개한다. 관, 귀걸이, 반지, 팔찌, 허리띠와 신발 등 귀금속제 장신구 중심의 황금 문화가 절정을 맞는다.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의 독창적인 금관은 신라 금공 문화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대가야 유적에도 신라 양식 혹은 신라산 금공품이 유입된다. 고령 지산동과 함천 옥전 고분군에 발굴된 조우관의 관식, 출자형 입식을 갖춘 금동관, 금귀걸이 등의 장신구이다. 지산동 45호분 삼엽 대도(三葉 大刀)는 신라 완제품이 대가야로 도입된 사례이다. 동시에 신라 왕경에서도 대가야에서

도입한 금공품이 발굴되었다. 경주 식리총과 호우총의 칼자루에 용두봉수 장식이 달린 장식대도는 신라 대도 중 이례적인 존재로 대가야산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아라가야와 소가야와의 금공 문화

아라가야는 안라(安羅)로 불리며 경남 함안에 웅거한 세력이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 고대 금공품 연구의 공백으로 남은 아라가야 금공 문화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금동관, 귀걸이 등을 살펴 대가야, 신라 금공 문화와 다른 독자적인 아라가야 양식의 존재와 아라가야 세력의 귀금속 공방 운영을 설명하고 있다.

소가야는 경남 고성 일원을 중심으로 삼는 가야 세력 중 하나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이 소가야 최상부 집단의 묘역이며, 송학동 고분군 출토 금공품에서 소가야 금공 문화의 일면이 찾아진다. 이 책에서는 소가야 금공 문화의 특색으로 다양한 양식의 혼재를 언급한다. 소가야산 팔찌, 백제산일 가능성이 큰 은제 허리띠 장식, 신라에서 들여온 팔찌, 대가야에서 도입된 장식 마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저자는 소가야 금공품 계보의 다양함에 대해 주변국과 교류를 수행하던 소가야인의 면모, 주변 제국이 소가야를 포용하려 노력한 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 대가야와 왜의 금공 문화 교류

고대 한반도 남부 각 나라와 일본열도 집단 사이 역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금관가야와 대가야권 여러 지역에 스에키가 출토되고, 일본열도 규슈를 중심으로 가야 계열 유적 유물이 찾아지고 있다.

저자는 복수의 공구체에 사슬을 연결한 장쇄식 귀걸이와 산치자형 수하식을 부착한 단쇄식 귀걸이를 설명하며, 일본열도에서 백제와 신라보다 대가야 계열 귀걸이가 특히 선호되었음을 설명한다. 일본열도에서 백제계 귀걸이는

단편적으로 완제품 형태로 반입된 데 비해, 대가야 귀걸이는 양식적 선택되어 일본열도 고유 양식으로 변용된 것으로 논증한다.

• 대가야와 나라별 금공품 교류의 온도 차이

이 책의 「4부 금공품의 양식 비교」는 대가야 시각에서 백제, 신라, 아라가야, 소가야, 일본열도의 금공품을 꼼꼼히 비교했다. 일차적인 물품의 이동을 넘어 나라별 금공품 교류의 온도 차가 행간에 들어있다.

백제로부터는 금공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곧 ‘대가야화’로 발전한다. 신라와의 금공품 교류는 그보다는 제한적이며 신라 요소가 대가야 금공품에 수용되는 강도 역시 낮다. 저자는 대가야 사회가 신라보다는 백제 양식 금공품을 선호했고, 그것에 기반해 대가야적 색채가 짙은 금공 문화를 창출한 것으로 해석한다.

저자는 대가야의 금공 문화가 한반도 남부 지역 금공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화가 진전되는 계기를 마련했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Ⅳ. 맺으며

저자 이한상은 한국 고대 사회의 금공품을 폭넓게 다루는 연구자이다. 이번 『대가야의 성장과 금공 문화』 출간으로 신라와 백제에 이어 대가야에 이르는, 삼국시대 금공 문화의 세 축을 세우게 되었다. 저자는 ‘수수께끼의 왕국’으로 인식되는 대가야의 단절된 기록을 금공품으로 채우고, 고대 국가로 성장한 대가야의 금공 문화를 생생히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금공품의 풍부한 컬러 사진과 그림, 가독성 높은 문체, 행간 사이 깃든 의미들이 책 안에 한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고대사와 금공품을 다루는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의 교양 도서로도 충분히 권장된다. 이제 대가야의 금공문화를 즐길 일은 독자의 몫이다.

